

[보도자료] 코로나 재확산으로 찾기 어려운 복지관 쿠팡이츠서비스, 보온가방 기부 “도시락, 따뜻하게 전달되길”

2022. 10. 12.



- 복지관 찾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도시락, 쿠팡이츠서비스 보온 가방에 담겨 전달
- 쿠팡이츠서비스,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 복지관에 1000여개 후원

2022. 10. 12. - 쿠팡이츠서비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복지관을 찾기 어려운 노인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할 수 있는 보온 가방을 기부했다.

지난달 29일 쿠팡이츠서비스는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양천, 노원, 용산, 종로, 은평 등 15개 회원 복지관에 1000여개의 보온 가방을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.

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복지관을 찾던 노인들이 복지관을 찾기 어려워졌다. 복지관은 직접 복지관을 찾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과 반찬 등을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 쿠팡이츠서비스가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15개 회원 복지관에 제공한 보온 가방은 ‘사랑의 도시락’ 및 반찬 배달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.

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등은 신체적,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 위험에 처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영양식사(건강급식, 도시락, 밑반찬)를 제공하고 있다. ‘사랑의 도시락’은 만 65세 이상 영양 불균형 등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거주지로 배달되는 서비스다.

강동진 쿠팡이츠서비스 상무는 “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복지관을 찾을 수 없는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찾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밑반찬 및 도시락이 쿠팡이츠 보온 가방에 담겨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